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12 (2013.06), 211-218.

서 평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마키아벨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공 진 성**

마키아벨리는 매력적인 사상가이다. 그 매력이 마키아벨리를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한 듯하다. 그런데 그가 거론된 방식은 시대마다 달랐다. 한때는 '악의 화신'이나 '폭군의 조언자'로서, 또 한때는 '인민의 친구'나 '정치의 옹호자'로서, 또는 '진정한 애국자'로서 거론되었다. 다른 사상가들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읽히기는 매한가지이지만, 마키아벨리만큼 상이하게 읽히는 경우는 드물다. 이처럼 다양한 독해가 가능한 것은 마키아벨리의 글이 가진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일 것이다.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이 풍부한 오해의 가능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정치학이나 역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키아벨리와 그가 쓴 책의 이름은 알고 있고, 조금이라도 정치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군주론』을 자신의 책장에 꽂아두고 틈날 때마다 읽어본다. 한국어 번역본의 종수가 가장 많은 서양 고전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일 듯싶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그리고 그의 책 『군주론』은, 매력적인만큼 또한 위험하다. 과거에 그 책이 이른바 '종교와 도덕을 부정하고 악을 전파'하기 때문에 위험했다면, 오늘날 이 책은 제멋대로의 독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제멋대로 독해란 텍스트를 자기 고유의 컨텍스트에서 떼어내어 임의의 컨텍스트에 집어넣어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처세술이나 리더십 교재가 된다.

---

* 김경희, 『공존의 정치: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새로운 이해』에 대한 서평

** 조선대

두 가지 대안적 독해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로마사 논고』를 함께 읽어 마키아벨리의 모습을 조금 더 다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키아벨리를 그 당시의 시대 맥락 속에 온전히 위치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또 다른 주저 『로마사 논고』가 2003년에야 비로소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생각하면, 그런 대안적 독해가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번역본이 · 출간된 지 10년이 지났음을 생각하면, 이제 그런 대안적 독해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음직하다. 또한 마키아벨리의 텍스트를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퀜틴 스키너를 비롯한 여러 역사학자들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런 노력들의 소개가 한국어로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대안적 독해는 이제 최소한 학문적인 상식이 될 법도 하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

한국 사회의 마키아벨리에 대한 강고한 오독의 습관은, 성서읽기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듯이, 고전을 역사적 맥락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담은 텍스트로 간주하여 무비판적으로 암기하듯 읽고, 그러면서도 또 아무 맥락에나 자기 맘대로 집어넣어 읽고 싶은 대로 '창의적으로' 읽어내는 우리의 일천한 고전독서 풍토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이고 의인화된(anthropomorphic) 정치 이해가 오독을 재생산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오독의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텍스트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언어적 이해는 물론이고, 정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탈인간중심적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올해 초에 출간된 김경희의 『공존의 정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이런 독해를 보여준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에서는 『군주론』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을 비교 · 분석하고 있다. 이 장의 내용은 일단 다양한 해석의 역사를 『군주론』의 출간 이후부터 현대까지, 유럽부터 한국까지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근대 정치사상사가 『군주론』에 대한 해석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 역사를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놓고 있다. 이 장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군주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굳이 『로마사 논고』가 보조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군주론』에 대한 오독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다분히 『로마사 논고』에서의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적' 주장에 기대어온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차별점이다. 다른 하나는 『군주론』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이 모두 이 책을 '독존의 정치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독해왔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즉 기존의 해석들이 정말로 『군주론』을 '독존'의 정치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해왔고, 이 책이 성공적으로 『군주론』을 '공존'의 정치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해낸다면, 이것 역시 분명히 기존 연구들에 대한 중요한 차별점이자 커다란 학문적 기여가 될 것이다. 2장과 3장의 내용은 이 주장을 『군주론』에 대한 독해를 통해 입증해 보이는 작업이다.

2장에서 저자는 『군주론』을 재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서 마키아벨리의 정치론(정치체론)과 권력론, 그리고 선정론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이론적 기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공존의 정치학'이라는 새로운 해석에 결정적인 것은 그의 정치체론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치공동체를 일종의 유기체로 파악하는 것인데, 저자는 마키아벨리가 어떻게 정치공동체를 인체에 비유하면서 인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치공동체를 이해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정치공동체를 하나의 '몸'으로 이해할 때에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은 이른바 '관계적' 권력론이고 '동태적' 선정론이다('동태적'이라는 수식어는 서평자의 것이다). 인체와 마찬가지의 유기체로 정치공동체를 이해할 때에 군주 개인이 가진 '역량'과 군주국이 가진 '권력'은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사람의 머리가 가진 지력이 곧 그 사람이 가진 힘 전체가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머리가 제 아무리 좋아도 팔다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듯이, 군주 개인이 제 아무리 잘났어도 함께 정치적 몸을 이루는 다른 부분들과 제대로 결합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이고 타당한 얘기이지만, 우리가 유기적 전체임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쉽게 간과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군주론』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군주 개인의 비르투(역량)가 아니라 군주국 전체의 비르투이며, 이때 국가의 비르투가, 군주 개인의 그것처럼 혼자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국가의 다른 구성원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독존'과 '공존'이라는 대립되는 키워드를 찾아낸다. 유기적 전체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이, 설령 그

것이 군주일지라도, 독존할 수는 없으며,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른 부분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관계적 권력론은 공존의 정치학과 연결된다. 공존을 위해 군주가 펼치는 정치가 바로 '선정(善政)'인데, 만약 선정이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선험적인 도덕기준을 따르는 중세적 의미의 선정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른 계기를 가지는 동태적인 선정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선정의 두 계기를 '건국'과 '치국'으로 나누고, 각각의 계기에서 어떻게 선정이 다르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한다. 이것 역시 정치공동체를 인체에 비유하여 설명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다. 몸이 아플 때에 몸을 잘 다스리는 방식과 몸이 건강할 때에 몸을 잘 다스리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거기에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3장은 이와 같은 이론적 기반 위에서 저자가 직접 『군주론』의 텍스트를 독해한 것이다. 이 부분은 가히 깊이읽기의 전범(典範)이라고 할 만하다.

4장에서는 이런 식의 『군주론』 독해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재봉건화'와 '재귀족정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야기한다. 『군주론』을 읽을 때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쉽게 오해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또 반대급부로 이 책의 메시지를 단순한 처세술로 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책이 '군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주론』을 읽는 일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온갖 도덕적·종교적 장애가 없다손 치더라도, 군주국가에서나 통용될 법한 얘기가 오늘날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정상적인 독자라면 당연히 품을 법한 이런 의문을 생략한 채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과 정치지망생들은 오늘도 『군주론』을 탐독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 책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정치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으로서 『군주론』을 소비한다. 그런 독자들을 염두에 두며 저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던지는 현대적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당시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정치상황과 현대 한국사회의 정치상황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 유사한 상황은 바로 '재봉건화'와 '재귀족정화'라는 말로 압축된다. 그것은 다시, 한마디로 말해,

국가의 '사사화' 현상이다. 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 당시에 요구된 것이 군주의 비르투였다면,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저자는 과거에 군주가 독존적이어서는 건국과 치국의 선정을 이룰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독존적 리더십에 의존해서는 재봉건화와 재귀족정화의 위험에서 정치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수도 없고, 그렇게 일으킨 정치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존의 리더십은 권력을 관계적으로 사고할 때에만 발휘될 수 있고, 정치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자신과 권력을 제로섬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권력을 구성하는 존재로 인식할 때에만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이 발휘될 때에만 정치공동체에는 활력이 넘칠 수 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은 완전함에 대한 다른 이해와 관련되어 보인다. 저자는 단수성과 복수성의 차이를 매우 흥미롭게 구분하고 있는데, 저자에 의하면, 개인의 유연성과 역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복수로 사람들이 결합하면 그들이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개인적 한계를 넘어 상황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264쪽). 이는 완전함의 기준을 모든 개개인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더 완전한 사람이 덜 완전한 사람을 지도하거나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완전함이 개체적 수준에서 각자 다르며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결합할 때 오히려 개체의 능력이 더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는 더욱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을 마키아벨리가 '개인'의 수준에서 전개한 것은 아니고, 저자 역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연성의 증대를 역량의 증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복수의 사람들의 긍정적 결합으로 이해한 것은 100년 후에 태어날 스피노자의 생각을 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스피노자는 세상에 지성적으로 무력한 바보나 신체적으로 무력한 장애인이 존재하는 것이 신의 불완전함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신의 완전함의 증거라고 반론한다. 그 모든 다양한 존재의 합이 곧 신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신의 완전함이 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다양함에 있지 그 획일성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정치공동체에서도 그 완전함은 그 안에 결합해 있는 존재들의 다양함, 그러나 하나로 결합해 있음에 있지, 결코 몰개성적 획일성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런 스피노자의 생각은 마키아벨리의 생각과 공명한다.

이 책이 『군주론』을 재해석하기 위해 주목하는 것은 마키아벨리의 정치체론이다. 이는 정치공동체를 인체에 비유하는 일종의 유기체론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국가관과 비슷하지만, 그 구성 성분들의 관계를 매우 동태적으로 파악하면서 균형을 추구하고 활력을 북돋우려 한다는 점에서 그것과 사뭇 다르다. 이 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석의 장점이 이 차이에서 비롯한다면, 단점은 이 유사성에서 비롯한다. 즉 유기체론적 국가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마키아벨리의 정치학이, 새롭게 해석되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개인 관념의 부재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시대적 한계에서 비롯한 것일 뿐, 이 책의 저자의 잘못은 당연히 아니며, 마키아벨리의 잘못도 부분적으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그 이상을 주장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냥 무시할 수도 없다. 이 책의 마키아벨리 해석이 매우 매력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칫 전통적인 유기체적 세계관에 동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유기체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마키아벨리는, 비록 독존의 정치는 아니지만, 여전히 군주의 권력에 대해 말하며, 군주에게 군주국 전체를 위해 인민의 역량을 이용할 것을 가르치며 다양한 사람들의 재주를 결합시킬 것을 권한다. 아무리 공존의 정치를 역설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전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유기체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권력자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인민에게 희생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게 된다. 즉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공존'의 정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더 효율적이고 더 세련된 지배의 기술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정치론 안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정치의 재봉건화와 재귀족정화 현상에 대한 강한 비판의 무기를 마키아벨리가 제공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그 무기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것이 동시에 사회의 이른바 '조화로운' 유기적 관계를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가지는 보수적 함의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체론이, 그리고 그에 근거한 공존의 정치론이 현대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이중적 함의를 이 책이 짚어주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 오늘날의 인민은 마키아벨리가 '자유를 좋아하는 존재'로 단순화하여 묘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인민을 보호하고 객관적인 제도를 이용해 귀족을 견제하는 것만으로 쉽게 공존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 같다. 결국 인민 개개인이 스스로 그런 구성적 권력 관계를 맺기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저자의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군주에게 헌정되었지만, 정작 동료 시민들에 의해 읽혀졌다."(268쪽) 저자 역시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책이 일반 시민들에 의해 읽혀 시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새로운 공존의 정치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